

보도자료 2014 강정 평화컨퍼런스와 평화대회	제 목	너에게서 평화가 시작되리라! 동북아 군축평화 : 신학적 성찰과 상황분석
	일 자	2014 년 09 월 26-28 일 (금-일)
	문 의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02-3276-7708 책임 연구원 박유미 010-9196-9368

2014 강정 평화 컨퍼런스와 평화대회

“너에게서 평화가 시작되리라!” (미카 5, 1-4)

컨퍼런스 주제 : 동북아 군축평화
 : 신학적 성찰과 상황 분석

1. 취지와 목적

자연 생태계와 인간생명 존엄성 보존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제주 강정의 해군기지 설립에 대한 반대와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란 이름으로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진행과 완공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 이전에 전제해야 할 연구와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되며 나타나는 문제점들, 자연파괴와 주민공동체 분열, 그리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동북아 군비확충을 둘러싼 위험성과 갈등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논의하고 전달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기쁨'을 나누며 '진정한 평화'를 전하고자 하는 좀 더 많은 이들이 신앙의 눈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인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제 평화컨퍼런스의 주제발표와 소그룹 토의를 통해 1. 동북 아시아의 군축평화라는 국제적인 연대의 시각에서 강정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살펴보고, 2. 신앙인으로서 군축평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에 바탕을 둔 평화운동을 깊이 성찰하며 3. 파괴된 자연과 지역 공동체 안에서도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가기 위한 비전을 생각해보려 한다.

그리고 강정 마을 안에서의 여러 문화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또 신앙인들은 신앙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평화를 위한 움직임을 펼쳐가야 할 것인지를 체험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관심있는 이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평화대회적인 성격 안에서 전문가 활동가 그리고 사목자들의 심도있는 나눔을 통해 앞으로의 평화운동 전개방향을 나누고 연대를 결속하는 시간, 함께 비전을 찾아가는 실제적인 자극제가 되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성격** : 국제 평화컨퍼런스와 평화대회.

3. **주최** : 천주교 제주교구와 예수회 한국관구

주관 : 제주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협력 : 강정마을회, 강정 지킴이

후원 :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 위원회,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4. **날짜** : 9월 26일(금)-28일(일)

5. **대상** : 지역프로그램 주요 대상은 가톨릭 신자들과 관심있는 이들,
소그룹 나눔은 구체적 연대 가능한 전문가와 활동가들로 미리 구성

6. **강연회 장소와 프로그램 공간**

강정천 옆 운동장과 서귀포 성당 - 시작 마침미사와 주제발표, 소모임 나눔.

강정마을 내부 - 강정 평화 관련 다양한 체험과 묵상 프로그램

7. **참가비** : 10만원 (숙박비(20인실 기준)와 식비, 음료수, 기념품비 포함)

숙식을 개인이 해결할 경우엔 별도/ 제주교구 신자 - 별도/ 본당에 신청.

8. **구성**

A. 컨퍼런스

⇒ 발표와 질의응답 : 전체 참여/ 참여 개방

발표자 - 현재 확정된 분들

- ① 강우일 주교: 군축평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
- ② Michele Naar-Obed (미국 Plowshare, 중동에서도 활동)
미국 군비확장의 사회적 이유와 동북아 군비확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군비확장 반대 운동
- ③ 다이지 타니 주교 (전 일본 정평위원장, 현 오키나와 평화활동)
- 평화헌법과 오키나와의 현실
- ④ 참여연대와 평화네트워크측에서 평가, 보충발언(짧은 강의 형식도 좋음)

- ⇒ 소그룹 나눔 (활동가와 전문가들 30-40명) - 원하는 사람 방청 가능
- ⇒ 소그룹 나눔 발표와 종합 - 전체 참여/ 참여 개방

B. 강정 내 체험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고안)

: 강정 지킴이 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 + 새로운 방식 모색

“ 강정에서 미사와 반대의사 표명만이 아니라 문학적/예술적 표현방식으로 또 전례적으로
담아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들이 있다. 일반인들도 다가갈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하다.” - 강우일 주교

- . 아침 평화묵상 백배
- - 주교님과 함께 하는 강정 각처 묵상 : 환경과 역사 인식과 묵상, 기도
- 예컨대 구럼비 보이는 강정포구, 강정천 옆 공사현장, 평화센터 ...
- 우주걸기 (현대 부분에 강정 내용 2개 정도 보완) - 강정천 따라 맷부리길
- 모자이크 평화 십자가 제작 : (모자이크 하나씩 참가자들이 제작)
- - 강정관련 영화 상영
- 활동가들의 일상 영상 또는 사진 전시
- 강정댄스 배우기
- **평화 음악회 / 문화공연**
- - 평화장터
- - 한열 수사와 함께 하는 떼제 기도 - “평화의 순례”

C. 마무리 집단 퍼포먼스

9. 주제발표자 소개

· 강우일 주교 - 제주 교구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Michele Naar-Obed, 1956년생

미셸 나-오벳(Mischele Naar-Obed)은 오랫동안 평화운동을 해온 활동가다. 1993년과 1995년 뉴포트(Newport) 뉴스 해군기지에서 펜스를 부시고 들어가 핵잠수함을 망치로 두드리고 “생명, 정의, 평화”라고 쓰여진 배너를 펼치는 행동팀의 일원으로서 “무단침입과 재산침해유발”죄로 체포되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신앙에 바탕을 둔 활동가 공동체 “요나의 집”에서 함께 거주했던 활동가 그렉 보르트에 오벳(Greg Boertje-Obet)과 결혼해서 딸 레이첼을 낳았다. 미셸과 그렉은 미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여 의식화 행동을 수행하는 Transform Now Plowshare 그룹의 강력한 멤버다.

언제나 가족들과 신앙의 힘으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활동하면서 미셸은 또한 ‘비폭력 평화 행동주의’(2003, 사회정의지),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제공해야 한다.’(2008)과 같이 크리스천의 평화행동 미션에 대해 설명하고 비평하는 여러 글을 쓰고 인터뷰를 했다. .

2006년부터 최근 몇 년간 그녀는 Christian Peacemaker Team들과 함께 이라크 Suleimaniya 에서 인권 옹호, 폭력을 감소시키는 조직으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였다.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비폭력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이라크에 머물지 않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Duluth에서 지낸다. Duluth에서 힐데가르트 가톨릭 노동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미아노 센터의 Kid’s Café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Transform Now Plowshare 행동으로 5년형을 언도받아 흉악범들이 수감된 곳에서 복역하고 있는 남편 Greg을 뒷바라지 하고 있다.

참조 : <http://disarmnowplowshares.wordpress.com/tag/michele-naar-obed/>



타니 다이지(谷 大二) 마르첼리노 주교

1953년, 효고현(兵庫県) 타카라주카(宝塚市)시에서 출생. 1986년 3월 21일 사제서품을 받았고, 2000년 5월 10일, 우라와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어 2000년 9월 15일 교구장에 착좌했다. 우라와 교구는 2003년 3월 31일자로 사이타마 교구로 이름이 바뀐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의 주교문장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2 티모 2, 22)를 사목표어로 삼은 타니주교는 착좌식에서 “이국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하는 임시체류자들. 다른 문화, 언어 속에 정착하려고 악전고투하는 이주자들. 가정, 사회, 지역 등에서 성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들. 가정, 사회의 아픔의 희생자로서 학대된 어린이들과 청소년. 병이나 신경 쇠약에 시달리는 장애인들. 일본 사회의 편견이요 최하층지역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 < 돈이 전부... >라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의 톱니 바퀴가 되어 고통받는 기업 전사들. 인생의 의미, 목표를 찾아 헤매고 고독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본 주교회의 정평위 위원장을 맡아 과거 일본의 행위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사과를 표하고 재일 한국인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 대하여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오키나와의 관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연대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2011년 지진과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교구 교구장으로서 하느님이 관장하시는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확실하게 새기며 전하고 일본의 평화헌법(헌법 9조) 수호를 위한 운동을 펼쳤으며, 후쿠시마 제 일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는 방사능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 교구장 사임을 표하고 6월 27일 교황으로부터 교회법 401조 2항에 따라서 타니주교의 사이타마 교구 교구장 사임을 인정받았다. 현재 오키나와에서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